소련이여 영원하라



N 2021년 한국 1인당 gc





통합 VIEW 이미지 지식iN



2021년 한국 GDP성장률 4%...1 **인당** 국민소득 3만5168달러 - **대**...

2022.03.03. 한국의 **2021 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 **DP**) 성장률이 4.0%로 집계 됐다.또 **2021년 1인당** 국...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53...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



관련문서 더보기 >





2021년환산 1인당 gdp(ppp)가 2만유료였음.

서방 경제학자들은 이런데 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실패했다고 하는겨?

지금 러시아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이고 우크라이나는 3000불인데?

심지어 분배상으로도, 국가단위에서(도시단위로는 문혁중국이 1등) 1946년 빼고 소련이 쭉 1위고(그때 체코가 1위먹은걸로 앎) (이모든것은 지니계수 기준)

사회주의 체제가 열등하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중에 선진국 있냐고 ㅈㄹ하는 반동놈들 많던데 소련이 1980년대에 저정도인데 저게 선진국이 아니냐?

또 냉전시기 소련하위50%는 미국 하위50%보다 구매력환산지수가 더 높은것은 모르나봐.

미국이 소득이 소련보다 높은건 팩트지만 분배가 불평등하기에, 실질적으로 소련의 서민계층이 미국인 서민계층보다 더 좋은 삶을 영위한 것이다.

또 우파놈들이 파이를 키우자고 하는데 스탈린은 경제적 평등을 자본주의 국가보단 좋은수준을 유지하며, 경제적 성장도 이륙했 는데, 그럼 스탈린이나 숭배하라(심지어 경제성장률 냔간20%였다)

마르크스적으로 해석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축적이 이뤄지지 않기에 이윤율의 저하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자본주의 국가는 끊임없는 경제 위기를 겪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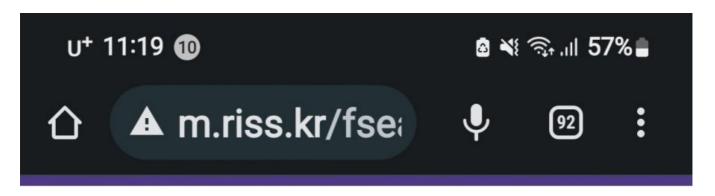
실제로도 서구 국가들의 경제가 대공황일따 스탈린의 소련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오일쇼크로 죽어나갈때도 브레주네프의 소련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음. (경제적인 성과만 보자는것)

이런 점을 종합할때에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함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함. (즉 사회주의 체제는 적어도 산업화된 상태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상대로 체제우위를 가짐)

여기 있으신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것 같으신데, 사회주의 경제로의 이동은 필연적이며, 자본축적이 이뤄질수록 자본주의의 파멸은 도달되고 있음.

실제로도 이윤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간혹 자본주의가 안망한다는 분도 계신데, 어차피 이윤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자본주의의 경제는 망할수밖에 없음. 단지 사회주의자의 역할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일으켜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함. 소련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체제우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레닌이 지적한 사회주의 정당내 분파의 위험성이 국제관계상에서 나타날때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함(중소갈등이 소련붕괴의 원초임, 실제로 소련은 군비의 상당부분을 중국국경에 넣어야했고, 이로인해 군비가 GDP의 8%가 넘어갔고, 중국은 아프리카의 혁명전파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같이 반혁명분자을 도왔음(주로 등소 평때))

고로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생각함. 실제로 주요 경제 지에도 맑스경제학논문이 많음(SSCI표식과 AHCI표식받은 논문도 많고) 개인적으로 영구혁명님이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한국 논문중에서도 마르 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한 논문도 있음.



SCOPUS SSCI

AHCI

Profits of Doom: Spectres of Capitalist Crisis.

Authors : Palmer, Bryan D. 1

Author Affiliations: ¹Canada Research Chair, Trent University.

Source: Labour / Le Travail. Spring2011, Vol.

67, p189-201. 13p.

ISSN: 0700-3862

Document Type: Book Review

Subject Terms: *NONFICTION

PublishedDate: 2011-05-01

Database: ASC

원문보기 인용하기 F 복사신청 내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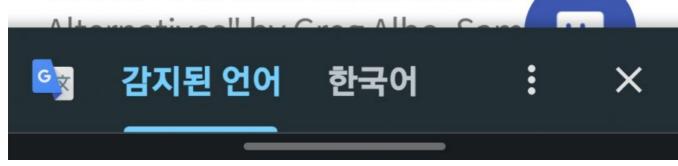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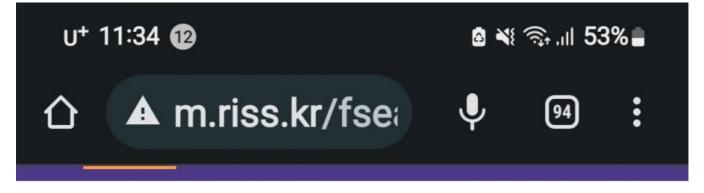


부가정보

Abstract

The article reviews the books "Global Capitalism in Crisis: Karl Marx and the Decay of the Profit System" by Murray E.G. Smith, "In and Out of Crisis: The Global Financial Meltdown and Left





SCOPUS SSCI AHCI

That was Then, and This is Now: Socialist Reflections on Responding to Capitalist Crises: Priority # 9: Build a Socialist Left, Inside and Outside of the Unions

Authors: Palmer, Bryan D.

Source: Labour / Le Travail. 64:167-172

Language: English

ISSN: 07003862

Document Type: research-article

Publication Year: 2009

Subject Terms: CapitalismSocialismLabor unions

Economic crisesGreat Depression

Communism Working class

Class struggle Welfare state Labor

Access URL:

https://www.jstor.org/stable/40650151

Rights: © 2009 Canadian Committee on

Labour History

PublishedDate: 2009-10-01

인용하기 토 복사신청 내보내기











< maito14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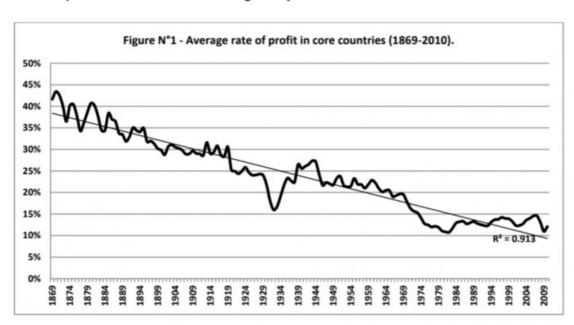
:

The rate of profit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 rate of profit in the long run shows a clear downward trend, shared by both the core and oldest capitalist development as the peripheral ones¹².

a) The core countries

For the core countries, our series start in the second half of the XIX century, marked by the general crisis of 1871-1873 that, as noted earlier, would imply a sharp fall in profitability, to show some stability in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presence of the three national spaces that successively became the core of the development of the mode of production for several centuries (Netherlands,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together with the two countries which otherwise posed strong economic competition to American hegemony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Germany and Japan), gives their series a particular relevance reflecting the systemic trend.



^ ~

The rate shows a sharp decline in the general crisis of 1930 and a subsequent recovery whose highest point is given by the Second World War. Anyway, after the war, the rate drops so that finally re-locates in the previous trend line. That is, capital could not escape the trend development even through the wildest barbarism in the history of mankind.

Germany, USA, Netherlands, Japan, United Kingdom and Sweden are considered core countries. While Argentina, Australia, Brazil, Chile, China, Korea, Spain and Mexico are considered peripheral.